

[사회]

수시 1학기 모집 없앤다

2010학년부터... '수업 과행' 개선키로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 수시 1학기 모집이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2학기와 통합해 실시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 1학기 모집은 2009학년도까지 대학 자율로 실시되다가 2010학년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수시모집제도는 대학이 연중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

생들에게는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7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 됐다. 이후 2002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과 2학기 구분해 실시되면서 수시 1학기에서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수시모집 구분으로 인해 고교 교사가 1년 내내 진화지도에 매달리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등 '수업 과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수시 1학기 모집을 시행한 대학은 2002학년도 66곳(34.4%), 2004학년도 88곳(44.2%), 2005학년도 102곳(51%), 2006학년도 112곳(55.7%), 2007학년도 118곳(59%)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조선대 등 상당수 대학이 고교 교사가 1년 내내 진화지도에 매달리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등 '수업 과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예고한 바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줌마 발언' 말쑥 전남대 문화대학원 이번엔 성희롱 파문

교수가 강의 중 기존 여성 학생들에게 '아줌마 비하' 발언을 해, 원장과 부원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보직사퇴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교수의 학생 성추문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3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생들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가 최근 이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B교수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B교수가 프로젝트를 위한 일본 여행에서 여자 3명만 있는 호텔 방에 들어와 술을 권하고 가운만 걸치고 있는 등을 더듬고 껴안았다"며 "모두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스스킨 심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교수는 연구실에서 어개를 주무르라고 하거나 성적 발언도 자주 했으며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억지로 스킨심과 블루스를 강요하

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교수는 프로젝트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다른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대학원은 물론 광주에서 살기 힘들게 하겠다'거나 '보조 연구원으로서 받은 돈을 내 통장으로 넣으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교수는 이에 대해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지난해 3월 이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지도 않은 사실을 이제 와서 주장하는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원은 최근 한 교수가 강의 중 '아줌마는 부당스럽다'는 내용의 말을 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끝에 원장과 부원장이 보직에서 물러났으며 해당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화창한 하늘
대체로 맑겠다.

4월 4일
(음 2월 17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2~12℃
부산	맑음	4~11℃
대구	맑음	3~12℃
대전	맑음	3~12℃
서울	맑음	-1~13℃
인천	맑음	0~12℃
울산	맑음	0~12℃
충주	맑음	0~12℃
청주	맑음	1~14℃
전주	맑음	-2~13℃
목포	맑음	2~11℃
여수	맑음	2~12℃
제주	구름조금	1~12℃
경남	맑음	-2~12℃
전남	맑음	1~1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3:08 썰물 < 08:25
목포 밀물 > 15:15 썰물 > 20:33
여수 밀물 < 09:57 썰물 < 03:51
여수 밀물 > 22:19 썰물 > 15:56

▲해돋이 06:16 ▲해질 18:56 ▲달돋이 20:30 ▲달질 06:39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날씨						
최저/최고	1/16	4/16	7/18	5/17	4/18	5/18

박스 '무제한 다운로드'

음반사들 가져본 신청

음반 무단 다운로드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던 박스(www.bugs.co.kr)가 DRM 해제 및 월 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방식을 놓고 음반사들로부터 가져본 신청을 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음반 등 음반사 9곳은 신청사에서 "박스는 DRM 기술 도입을 전제로 유료 음악 청취서비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협의를 없이 DRM을 해제하고 월 4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음반사는 "박스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각 회사에 5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노동운동 외면은 투쟁위주 노선 탓"

대학생 의식 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2명 중 1명은 투쟁위주의 운동노선 때문에 노동운동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9~12월 연세대와 한양대 등 수도권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식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50.5%가 이같이 대답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운동이 외면받는 이유 2위는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익대변 미흡(18.6%)'이었으며 그 다음은 '이념의 좌파적 편향성(16.7%)' 등이었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

다'(75.6%)고 답한 응답자가 '필요 없다'(1.8%)고 대답한 대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운동노선을 묻는 질문엔 '근로조건 개선위주의 실리적 노동운동'(5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운동'(17.1%), '투쟁위주의 전투적 노동운동'(14.1%), '정당 우위의 정치적 노동운동'(10.1%)이 뒤를 이었다.

노조가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37.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외계층 권익옹호'(21.1%), '직장 민주화'(13.0%), '근로자 경영참가'(12.4%) 등이었다.

/연합뉴스

"동·서부 교육청

특정 잡지 강매"

전교조 광주지부 주장

전교조 광주지부는 3일 "광주 동부·서부교육청이 특정 출판사 잡지를 광주시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강매하도록 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또 "잡지 구입비는 특정 사업에 반드시 집행토록 돼 있는 목적성 경비로 지급됐으며, 규모는

2003년 1억2천만원, 2004년 1억3천만원, 2005년 9천만원, 2006년 1억1천만원, 올해 5천800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모두 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시민 체제로 편성된 소중환 교육 예산을 학교회계에 산편성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특정 잡지 구독에 쏟아붓는 것은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예산낭비"라며 "교육청의 해명과 공개사과 ▲관련자 분석 ▲올바른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을 요구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담배 모종 분주

무안군 일몰을 상신거리 농꾼들이 담배 모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맘때쯤 모종한 담배는 6~7월께 잎을 따서 그늘에 말려 수매한다.

/무안=위정직기자 jrwi@kwangju.co.kr

오토바이 '위험한 질주' 급증

광주·전남 을 교통사고 63%나 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퀵서비스와 음식점·다방 등 배달업체 오토바이의 대대적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말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6명(전년도 1명)이었다.

지난해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683건으로, 2005년(518건)에 비해 31.8% 늘

었다. 사망자도 전년 3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10.5% 늘었으며, 부상자도 617명에서 789명으로 27.8% 증가했다.

경찰은 4월 한 달 동안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륜차의 경우 ▲인도·횡단 보도 운행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난폭운전 :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과태료 통지 등의 벌칙을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치료 안받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주들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의상도 없었고 1주일 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ALU-TESTOL

www.aluuniversity.com

02-606-4110-1515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동이경찰영어

동이외국어학원

사우스베이 안의대

www.southbay.co.kr

TOBC강좌 퍼레이드

동이외국어학원

흠칫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황토